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이 지 연
(이화여대)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번역은 예로부터 문명과 문화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번역 문제 역시 고대 로마시대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번역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존 캣포드(John Catford)는 일반언어학 이론을 가지고 번역에 대한 논의의 장을 새롭게 연 학자다. 1965년 그는 “번역의 언어학적 이론(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에서 구조주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 이론을 세워 번역 문제에 대해 구조주의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처음으로 텍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번역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로서 텍스트 언어학, 언어행위이론, 인지언어학 등의 새로운 언어학 분야의

활성화와 더불어 번역을 단순한 기호전환이 아니라 문화적 연관관계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문화적 연관관계란 번역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단순히 원천언어(source language: SL)에서 목표언어(target language: TL)로의 기호 전환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번역의 등가성 개념도 외연적 등가, 내포적 등가, 텍스트 규범적 등가, 화용적 등가, 형식적 등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최근 외국어 교육 환경은 과거의 읽고 쓰는 평면적 차원의 언어 연구에서 멀티미디어, 즉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 CD-ROM, 오디오 북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문자를 정보 전달의 매체로 삼던 과거와 달리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반한 정보가 TV와 인터넷 보급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수용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번역물 역시 문학 서적이거나 에세이 같은 인쇄물 못지않게 영상물 번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번역학의 흐름도 서서히 그 대세에 부응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영상 번역, 그 중에서도 이미지보다는 문자적 메시지 전달이 비교적 크고 따라서 번역가의 역량이 더욱 중시되는 TV 방송 뉴스의 번역 현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활자 매체가 아닌 다매체 원천언어를 목표언어로 번역할 때 필요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길리안 브라운과 조지 윌(Gillian Brown & George Yule)은 언어의 두 가지 주된 목적을 거래적인 것과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본다. 언어가 사실적·명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거래적 언어(transactional language)로 사용될 때는 메시지 중심적이 되고, 번역가는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최우선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언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작용적 언어(interactional language)로 사용될 때는 정중성(politeness)이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도문은 사실과 명제적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거래적 언어의 대표적 장르이며, 영어권 뉴스 지침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한국에서는 보도문에서조차 상호작용적 언어의 특징이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로빈 레이코프(Robin Lakoff)는 ‘정중성은 모든 인간의 교류와 상호작용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 간의 교류와 상

호작용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대인 관계상의 체계'(34)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한 문장의 문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련의 구조적 규칙들을 적용하듯이, 하나의 발화에 대해 화용적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화용론적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내용이 명료하고 전달 방식 또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발화할 경우 화용론적 언어사용능력(pragmatic competence)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296). 화자가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메시지 전달일 경우에는 명료성이 주된 관심이지만,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목적인 경우에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된다. 레이코프는 공손 전략과 의사소통 스타일의 기준으로 거리감(distance), 예우(deference), 동지애(camaraderie)를 제안한다.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는 격식성(formality)과 직결되고, 예우는 정중성(politeness)에 해당하며, 동지애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통의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때 발생한다. 이는 시청자에 대해 격식을 갖추고 공통의 흥밋거리를 뉴스 주제로 삼는다는 TV 뉴스 언어 특징과 부합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TV 뉴스는 비교적 다른 장르에 비해 정중성, 격식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어 뉴스를 한국어 뉴스로 번역할 때 정중성과 격식성의 수준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언어학적 및 문화적으로 접근해 찾아보고자 한다.

TV 뉴스는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의 기능별 텍스트 유형에 의하면 표현적(expressive), 정보적(informative), 호소적(vocative) 중에서 정보적 텍스트 유형에 속하고, 메리 스넬-혼비(Mary Snell-Hornby)의 텍스트 유형별 번역 기준 다이어그램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기능(communicative function)과 정보적 기능(informative function)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보성'이라는 특징 외에도 보도 기사의 특성상 사회적·문화적 문맥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TV 뉴스의 번역은 소통기능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을 위해서는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의 표층구조와 형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층구조 이면에는 심층구조, 즉 의미가 존재하고, 바로 그 의미가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로 번역하는 기본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이며 논리적 방식으로 조직된다. 특히 짧은 보도 텍스트일 경우에는 명료성과 경제성이 더욱 요구되며 논리적인 언어장치

들이 집약적으로 사용된다.

폴 그라이스(Paul Grice)의 협력원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이란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되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¹⁾. 텍스트는 저자와 독자, 혹은 화자와 청자 간에 일어나는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해당 언어의 특징이나 문화적 정보 공유로 인해 특정 정보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 역시 ST가 의도한 전체 의사소통의 일부이므로 경우에 따라 번역가는 이런 의미를 정확히 명시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정보라도 수용자(receptor)와 문화 문맥에 따라 겉으로 보이게 할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할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가가 상황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정보, 없는 정보,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간파해 필요한 경우 ST에서는 보이지 않던 정보라도 TT에는 명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번역이란 ST가 의도하는 의미가 TT에서도 재현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ST에 대한 어휘 및 문법적 구조, 의사소통 상황, 문화적 문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번역, 즉 문자가 아닌 소리와 영상으로 구성된 방송물 번역이 활자 번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중에서도 TV 뉴스 번역에서 두드러지는 정중성, 격식성이라는 특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고, TV 뉴스라는 장르에 맞는 적절한 번역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우선 뉴스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신문이나 잡지 등의

1) 그라이스(1975)의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본 방식에 관한 것으로, 협력적인 결과를 조장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라이스는 협력원칙을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s), 그리고 방법(manner)의 네 가지 격률(maxim)로 제안하면서, 네 가지 격률을 다시 아홉 개의 하부 격률로 세분화하고 있다.

활자 매체와 방송 뉴스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다매체 텍스트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ST인 영어 뉴스의 작성 지침과 TT인 한국어 뉴스의 작성 지침을 비교해 양 언어 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 규범과 실제 번역 현상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장르별 코퍼스 연구를 통해 알아보겠다. 그 중에서도 ST가 TT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즉 TT로 번역되면서 격식성과 정중성의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는 특징에 주목해 이에 관련된 매체적 특성과 언어적 장치 및 문화적 상황을 알아본다. 번역 현상을 신문과 방송 등 매체별로 분석한 뒤 영어 TV 뉴스와 한국어 TV 뉴스의 차이를 비교해본다. 이어서 영어 TV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ST와 TT간 언어적, 문법적 차이뿐 아니라 뉴스 등 보도문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준과 기대치가 ST 사용자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번역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고, 뉴스의 정의 및 규범, 기능에 대한 양 언어 간 시각 차이가 어떻게 번역 시 격식성과 정중성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된 장르 텍스트 코퍼스는 36개 장르의 334개 텍스트 샘플, 약 37만 어절로 구성된 것으로, 그 중 방송 뉴스의 경우, 11개 텍스트, 18,200 어절로 구성되었다. 분석 대상은 1995년 2월에서 3월 사이 MBC 9시 뉴스테스크의 뉴스 방송 내용으로, ‘방송 뉴스는 구어이기는 하지만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 작성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고, 뉴스의 특성상 보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강범모 45)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코퍼스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특성을 모두 갖춘 TV 방송 뉴스가 규범과 기능이라는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TV 뉴스 지침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살펴보았다.

2. 본론

2.1. TV 뉴스의 특성

인간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욕구 때문에 정보를 필요로 하다. 따라서 뉴스에 대한 욕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언론매체의 생명인 뉴스는 다원적이며 다양하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뉴스를 정의한 랜스 베넷(Lance Bennett)은 “뉴스는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관심사를 담아야 하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형식에 담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라는 영향성(impact),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 사안인가라는 근접성(proximity), 유명한 사람과 관계된 일인가라는 저명성(prominence), 새로운 일인가라는 새로움(novelty), 분쟁과 관련된 사안인가라는 갈등성(conflict), 언제 일어난 일인가라는 시의성(timeliness), 새로운 것, 진기한 것, 색다른 것인가라는 신기성(unusualness), 보편적인 가치, 규범체계에 크게 반하는 뉴스인가라는 부정성(negativity), 다른 사회적 이슈와의 관련은 없는가라는 관련성(relation) 등의 선택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방송에 사용되는 언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지니는 일반적 특성과 특정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이 지니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의 일반적 특성은 크게 진정성(authenticity), 격식성(formality), 정중성(politeness), 세련성(eloquence)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임태섭, 1996), 뉴스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개별적 특성은 공정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정확성(accuracy)이라는 세 항목으로 정리된다.

뉴스의 다양한 기능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언어표현의 조건을 꼽자면 첫째, 경제성이다. TV라는 매체적 특성상 간단하고 짧은 표현이 선호되고 현대 사회의 변화된 언어 행태가 반영된 현상이기도 하다. 둘째, TT 독자층의 다양한 분포와 익명성을 고려한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자연스러움이 강조된다. 실제로 KBS 방송국 보도국의 경우에는 뉴스 보도에 중학교 3학년이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목표 시청자 층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언어 표현 사용으로 풀이된다. 셋째, 인터넷과 TV, 영화 등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이 활자와 신문을 앞서고 있는 실정이고 그 만큼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격식성이 다른 장르보다 높게 책정돼있는 편이다. 지방색 짙은 사투리와 억양, 심한 욕설과 농담, 저급한 은어 등은 자체 검열되거나, 각 관련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TV 뉴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리얼리즘으로서, 신문이나 잡지 등 활자 매체와는 달리 전달매개가 언어와 영상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TV 뉴스는 사건의 현장에서 수록된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다른 매스미디어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게다가 ENG 카메라, 통신위성, SNG, 컴퓨터 그래픽 등 최신 방송 기기의 등장은 TV 뉴스의 현장성과 속보성을 날로 증대시키고 있어 TV 뉴스의 영향력은 다른 어느 매스 미디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2 한국어 TV 뉴스와 영어 TV 뉴스의 언어 지침 차이

지금까지 매체 특성에 따른 신문과 TV 뉴스 기사의 특징을 살펴봤고, 이제 한국어 TV 뉴스와 영어 뉴스간의 언어 지침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해보자. 두 언어와 문화의 보도 뉴스 지침에서 드러난 차이점이 영어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지, 혹은 더 나아가 보도 뉴스를 번역할 때 중요한 번역 전략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자료로는 김구철의 『침삭지도, TV 뉴스 리포트』, 김원용의 『방송보도론』, 이주행의 『방송화법』,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 방송 기사문장』 등 네 개 지침서를 대상으로 단어 수준, 문장 수준, 화용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먼저 공통적으로 제시된 TV 보도뉴스의 언어지침을 보면,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며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되 품위 있는 경어체 사용을 권하고 있다.

<표 1> 한국어 TV 뉴스 언어 지침²⁾

	한국방송기사문장	방송화법	방송보도	침삭TV뉴스리포트
공통점	간결성 정확성	간결성 정확성 논리성 품위성 자연성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경어체 구어체	간결성 정확성 객관성 품위/친절성 자연성

영어 TV 뉴스 언어 지침은 아이버 요크(Ivor Yorke)의 *Television News*와 앤드류 보이드(Andrew Boyd)의 *Broadcasting Journalism*, 캐롤린 다이애나 루이스(Carolyn Diana Lewis)의 *Reporting for Television*, 그리고 브래드 칼브펠드(Brad Kalbfeld)의 *AP Associated Press Broadcasting News Handbook*, 이상 네 개의 대표적인 지침서를 바탕으로 역시 단어 수준, 문장 수준, 화용론적 특징으로 구분지어 정리해보았다. 한국어 TV 뉴스 언어 지침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 역시 간결, 정확, 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영어 TV 뉴스 언어 지침³⁾

- 2) 위의 <표 1> 한국어 TV 뉴스 언어 지침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김구철, ‘침삭지도, TV 뉴스 리포트’, LG 상남언론재단, 1998
 - 김원용, ‘방송보도론’, 나남, 1993
 - 이주행, ‘방송화법’, 역락, 1999
 - 한국언론연구원, ‘신문, 방송 기사문장’, 언론연구원총서 (20), 1996
- 3) 위의 <표 2> 영어 TV 뉴스 언어 지침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아이버 요크(Ivor Yorke)/ 백선기 옮김, ‘TV 뉴스 제작론(Television News)’,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Boyd, Andrew. *Broadcasting Journalism; Techniques of Radio and Television News*, Focal Press, 1988.
 - Lewis, Carolyn Diana. *Reporting for Televis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Television News	Broadcast Journalism	Reporting for TV	AP News Handbook
공통점	간결성 용이성 명료성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양 언어권의 방송 언어 지침을 보면 ‘평이’, ‘간결’, ‘정확’ 면에서는 전반적인 공통점을 보이지만 한국어 방송 언어에서는 ‘품위’, ‘친절’, ‘경어체’ 등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TV 뉴스의 어미가 ‘~합니다’로 약속된 것만으로도 영어권보다 격식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한국어 기사에서는 어미 반복을 꺼리고 영어 기사에서는 중립적 단어의 반복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달동사 ‘say’ 이다. 한국어로 번역될 때 ‘say’는 ‘전하다’, ‘밝히다’, ‘주장하다’, ‘말하다’, ‘~에 따르면’ 등으로 변화되며 되도록 반복을 피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이나 물건을 지칭하는 경우 특히 그것이 주체어인 경우에는 영어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일 용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 TV 뉴스 지침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어미 반복과 접속어, 지칭어 사용을 피하고 수식어를 최소화하며 최상급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⁴⁾. 문장은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유지하며 수동태나 부정문보다는 능동태와 긍정문으로의 전환을 권장한다.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글자 수를 줄이고 발음하기 쉽도록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 문장 내에 들어가는 사실이 하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적(的)’ 등의 영어식 표현은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의 구성은 중요한 정보를 앞에서 다 쏟아놓은 두괄식 구조 혹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띤다.

반면 영어 TV 뉴스 지침을 보면 어휘 면에서는 짧고 친숙하고 발음하기 쉬

Kalbfeld, Brad. *AP Associated Press Broadcasting News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2001.

4) 참고문헌은 앞 서 <표 1> 의 한국어 TV 뉴스 언어 지침에 인용됐던 4종류의 지침서와 동일하다.

운 단어를 사용하고 중립적인 어휘 선택을 해야 하고, 되도록 외래어나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형용사 수도 최소화하고 숫자 역시 반올림 수로 간단하게 처리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장은 짧고 평서문 형태로, 부정문과 수동태보다는 긍정문과 능동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되도록 대화체이어야 하며 인쇄매체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은유나 직유 표현은 자제하고 인칭 대명사는 축약하며, 직위와 이름이 나올 시에는 직위를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출처동사 ‘say’의 동의어 ‘declare’, ‘state’, ‘assert’, ‘whisper’, ‘shout’, ‘declaim’, ‘repeat’, ‘recall’, ‘remember’, ‘inquire’, ‘ask’, ‘pronounce’ 등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도하기보다는 가치중립적인 say를 반복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Mencher, 116).

2.3 코퍼스로 살펴본 한국어 뉴스의 언어 특성

그럼 지금까지 정리된 지침이 실제 방송 보도 기사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대용량 언어 자료인 코퍼스를 통해 확인해본다. 언어학에서 코퍼스(corpus)의 개념은 20세기 전반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부터 기원했다. 이후 대용량 언어 자료인 코퍼스를 구축·이용하는 언어 연구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존에는 어떤 이론을 주장하면서 제한적인 증거만 제시하던 것에 비해 코퍼스를 도입함으로써 대량의 실제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번역 및 텍스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쇼샤나 블럼-쿨카(Shoshana Blum-Kulka), 모나 베이커(Mona Baker), 기디언 투리(Gideon Toury), 주디스 D. 슐레진저(Judith D. Schlesinger) 등이 연구한 바 있는데, 병렬코퍼스 문제를 다룬 베이커(1996)의 논문에서 정리한 번역 텍스트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베이커는 원문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코퍼스에 나타난 번역문들이 대체로 명료화(explicitation), 간결화(simplification), 정격화(normalization), 중립화(leveling out)의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는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특징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코퍼스 구축 방법과 그 규모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멀티미디어 텍스트 연구가 접목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Cobuild 사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버

밍햄 코퍼스(Birmingham Corpus)의 경우, 약 7백만 어절 규모의 주 코퍼스와 약 천3백만 어절의 보조 코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구성을 보면 75퍼센트의 글과 약 25퍼센트의 말, 전체적으로 특수 전공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 1960년 이후에 생산된 가능한 최근의 텍스트, 드라마 대본을 제외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텍스트, 시를 제외한 산문이 포함되고, 16세 이상의 말 및 글만 포함하며, ‘표준’ 영어만 샘플링하고 그 중 70퍼센트가 영국 영어, 20퍼센트가 미국 영어, 나머지는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저자 및 화자의 75퍼센트가 남성, 나머지가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멀티미디어라는 매체적 특성과 기능적 언어의 특성상 코퍼스와 가장 학문 연계성이 높고 상호 보완성이 큰 분야이며 동시대에 실제 사용되는 현상 연구의 큰 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기서 『한국어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의 텍스트 장르별 코퍼스 분석을 통한 언어 특성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 뉴스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언어 특성을 살펴보자.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 코퍼스는 36개 장르의 334개 텍스트 샘플, 약 37만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코퍼스는 개략적으로 신문, 서평, 대중잡지, 전기, 수필, 교양, 학술 논문, 동화, 작문, 법조문, 개인 편지, 소설, 공문서, 책 머리말, 연극, 영화, 방송 대화, 인터뷰 편집, 방송뉴스, 중계방송, 강연, 전화대화, TV 다큐멘터리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방송뉴스 언어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평균치보다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언어 특성을 모아 앞서 언급된 방송 언어지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과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어에 포함된 장르는 크게 봐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순수하게 ‘말해진’ 것을 전사한 것과, 둘째, ‘말해지기 위해 쓰여진’ 것이 있다. ‘말해진’ 것을 전사한 것에는 일상대화, 방송대화, 중계방송, 전화대화가 있고, ‘말해지기 위해 쓰여진’ 것에는 연극 대화, 드라마 영화 대본, 방송 뉴스, 연설, 한국어 대화집이 포함된다. 문어의 경우에는 신문, 잡지, 책, 미출판물(개인편지) 등의 여러 장르가 포함되었다.

코퍼스 통계에서 드러난 방송뉴스의 일반적 특성은, 구어지만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 작성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라는 점과 ‘보도’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1995년 2월 9일에서 1995년 3월 16일까지의 TV 뉴스 방송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더니 길이가 긴 단어들, 한자어, 공적 소통동사(“~ 보도합니

다”)와 형식적 어미 (“~합니다”)가 장르 특징으로 일관적으로 드러났다. 방송 뉴스라는 장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 특성으로는 첫째, 형식적 어미가 플러스 두 개(++)로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둘째, 공적 소통동사, 시제교체비율, 축약동사, 단어길이, 복합명사 등은 플러스 한 개(+)로 타 장르에 비해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뉴스의 언어 특징상 문어와 구어의 특징이 모두 포함되기 마련인데, 구어의 특징인 단어 길이 면에서는 플러스 두 개(++)로 비교적 길이가 긴 것으로 드러났고, 체언류, 조사-목적, 조사-소유, 공적소통동사, 시제교체비율, 축약동사, 형식어미, 한자어, 복합명사 등의 언어적 특성 면에서는 플러스 하나(+)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인칭, 일어문 비율, 형식어 타입 면에서는 마이너스 하나(-)로 비교적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강범모, 90). 이런 현상은 한국어 TV 뉴스가 구어로 구분되긴 했어도 그 언어적 특징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격식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위의 코퍼스를 이용하여 텍스트 유형별 언어 특성을 살펴본 결과 방송 뉴스의 언어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길이가 길고, 둘째, 한자 사용 빈도가 높으며, 셋째, 명사와 명사를 더해 만든 복합명사의 사용 빈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평균 80% 이상 높다. 이는 간단명료함과 한자어 사용 자제를 요구하는 언어지침과는 상충하는 특징이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방송 뉴스가 실제로는 지침보다 격식성이 높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목표 수용자 역시 규범이 정한 중학교 3학년 수준보다 높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영어뉴스(ST)를 한국어(TT)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규범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종류와 매체적 특징과 한계, 그리고 연구방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기존에 논의돼왔던 문자 중심의 연구와 중첩되면서 다른 층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글과 소리라는 형태적 특성과 방송이라는 매체적 특성 때문에 번역 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뭉치 언어학 즉 코퍼스 언어학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 장르별 언어 특성에 대한 코퍼스 통계자료에서 뉴스 언어의 특징만 모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다른 장르에 비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하

위 20% 미만의 특성과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은 상위 80%의 특성만을 모았더니 <표 3> 처럼 나타났다.

<표 3> 구체적 통계 수치로 알아본 뉴스 언어의 특성5)

	언어적 특성	보도문 평균치	최저 장르 평균치	최고 장르 평균치
하위 20% 미만	1인칭	6.72	0.20	37.75
	2인칭	0.45	0.07	18.62
	3인칭	1.18	0.08	20.75
	지시사	9.45	3.28	29.92
	대동사(그렇다, 그렇게 하면)	2.54	0.20	23.16
	연결, 이유, 설명 (~으니, ~때문에)	1.81	0.57	12.26
	의문	2.24	0.11	66.78
	명령	0.27	0.07	13.30
	칭유	0	0	2.87
상위 80% 이상	시제교체비율	0.32	0.01	0.32
	형식적 어미	49.00	0.22	49.00
	공적소통동사(언급, 주장, 선포 등)	9.63	0.83	13.10
	축약동사	20.63	0.90	20.63
	어휘사용 (다양한 선포/ 반복 X)	0.63	0.49	0.70
	한자어	417.72	116.54	509.00
	명사+명사로 이뤄진 복합명사	193.63	163.00	241.00
종속절 ~고 보문(~라고)	9.10	0.33	11.50	
보문명사 (~라는, ~냐는)	5.18	0.50	7.92	

우선 보도문이라는 장르 특성상 제안이나 권유 등의 ‘칭유형’이 장르별 최하위를 차지했고, 시제교체비율과 ‘~니다’ 등의 형식적 어미 사용면에서 장르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문문과 명령문의 사용이 매우 드물고, 1, 2, 3인칭 대명사 사용이 현저히 적으며, 지시사와 대동사의 사용빈도도 적었다. 반면에 언급, 주장, 선포 등의 공적소통 동사의 사용이 많고, 발음하기 쉽도록 축약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종속절과 보문명사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어휘

5) <표 3> 은 강범모 교수의 『한국어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에 집계된 장르별 언어 특성 코퍼스 통계 자료에서 방송 뉴스의 언어 특성 통계치만 모아 하위 20%와 상위 80%에 해당하는 언어 특성을 분류해 도표화한 것이다.

는 반복보다는 다양한 어휘 사용이 두드러지며, 한자어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의 사용빈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와 영어 TV 뉴스 작성 지침은 최대한 ‘단순, 간단, 명료’하게 쓰도록 되면 발음하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라고 규정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어 TV 뉴스의 언어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반복보다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한자 및 복합 명사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작성 지침과는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론과 실제 기사 작성에 괴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3. 결론

한국어 TV 방송 뉴스의 작성 지침과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 특히 격식성과 존중성이 높아지는 특징의 근본 원인은 상하관계를 중시하고, 겸양어가 발달된 한국과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영어권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TV 뉴스에 대해 대중이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도 일조한다. 서구에서 보는 뉴스의 정의는 “관심의 대상, 흥미, 기본적 자극요소, 생산물, 소비재, 수용자들의 불변의 요구에 따른 결과, 독립된 커뮤니케이션의 단편, 흥미로운 사건이나 사실, 만족과 자극” 등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서구 미디어의 주요 뉴스 가치는 사건의 규모, 근접성, 명확성, 단기적 시간, 적합성, 조화, 인격화, 부정성, 중요성, 극적 요소와 행동으로 정의되고, 뉴스의 주요 속성으로는 시의성과 시간적 근접성, 의외성, 유형의 예측가능성, 단편성, 사라져 버리는 성격, 신호 표시, 가치 반영, 흥미성, 사실성이 강조된다.

반면 한국 뉴스의 국 뉴스의 가치 기준은 먼저 시의성, 보편성, 근접성, 영향성, 인간적 흥미성이 꼽히며, 뉴스의 기능은 환경 감시, 구성원간 갈등과 불안요소 완화 등의 욕구조정 기능, 문화발전 기능, 사회교육 기능이 포함된다. 서구 뉴스와 비교해보면 뉴스의 정의와 가치 면에서는 동일하나 기능적 측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방향성 및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개별 뉴스 내용에 상관없이 뉴스에 대한 신

뢰도가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뉴스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전달 보도라는 면에서 교양·연예·오락 등의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고른 시청자 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유·소년과 청년층보다는 중·장년 및 노년층을, 지식이 적은 사람보다는 식자층을 방송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뉴스에 사용되는 어휘도 다른 프로와 달리 ‘공손체’를 기본으로 하며 ‘비회화적’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한자어 비율이 50%를 넘어 한자어 위주의 방송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인데 이는 단어 안에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격식성, 존중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TV 뉴스의 경우, 영어권에서보다 높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 기대, 그리고 겸양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더욱 공손하고, 문어적이고, 격식성이 높은 어휘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ST에서 TT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번역자의 개입, 즉 ST에서 정제되지 않은 어휘를 삭제한다던가, 아니면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던가, 혹은 ST에서 가치중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전달 동사 ‘say’를 TT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현상을 통해, 번역자가 일종의 검열자, 언어 순화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언론과 방송이 문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 기대가 TV 뉴스 번역에서 격식성과 존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번역 현상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세계의 방송』. 언론연구원 총서 1, 한국 언론 연구원, 1986.
- 『신문. 방송 기사 문장』. 언론연구원 총서 20, 한국 언론 연구원, 1996.
- 강길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정책연구 2001-4, 방송위원회, 81-132.
- 강범모. 『한국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응용을 위한 기초 연구』, 민음사, 1995.

- 강범모.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곽중철. 「해외 TV 보도 통역, 번역 방법론」. ITI 논문집, 2000 12월.
- _____. 『남의 말을 내 말처럼』. 김영사, 1992
- _____. 『YTN 위성통역실의 CNN 리스닝』. 다락원, 1998.
- 기호학연대. 『기호학으로세상 읽기』. 소명출판, 2002.
- 김구철. 『침삭지도, TV 뉴스 리포트』, LG상남언론재단, 1998.
- 김원용. 『방송보도론』, 나남, 1993.
- 김윤환.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언어학」.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제 41권 1호 (199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김정우.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창문사. 1996.
- 김혁동. 『영어뉴스 작성론』. 나남출판, 1998.
- 김효중. 『번역학』. 민음사, 1998.
- 머빈 블록/ 김혁동 옮김. 『영어뉴스 사례연구』. 한올아카데미, 2003.
- 모리스 페르니에/ 김현권 노윤채 옮김. 『번역의 사회언어학적 기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버나드 스폴스키(Bernard Spolsky)/ 김재원 이재근 김성찬 옮김.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박이정, 1996.
- 수잔 베스넷-맥과이어(Susan Bassnett-McGuire)/엄재호 옮김. 『번역학 개론 (Translation Studies)』. 인간사랑, 1996.
- 아이버 요크(Ivor Yorke)/ 백선기 옮김. 『TV 뉴스 제작론(Television News)』.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아쯔마 쇼지/ 스즈끼 준, 박문성 옮김. 『재미있는 사회언어학』. 보고서, 2001.
- 이주행. 『방송화법』. 역락, 1999.
- 임태섭. 「미디어 언어 비평- 주요 일간지에 사용된 문제 보도언어 분석」.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제 8권 1호 (2000), 『한국 커뮤니케이션학회』, 118-40.
- 클레어 크램쉬(Claire Kramsch)/ 장복명 강혜순 김정희 옮김. 『언어와 문화 (Language and Culture)』. 박이정, 1966.
- Baker, Mona.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in honor of Juan C. Sager*, Harold Somers ed., Amsterdam:

- John Benjamins, 1996.
- _____. ed.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1998.
- _____.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2.
- Bassnett, Susan and Andre Lefevere.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 New York: Printer, 1990.
- Beaugrande, Robert and Wolfgang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1972.
- Bell, Allan.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Blackwell, 1991.
- Bennet, Lance.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Longman, 1983.
- Biguenet, John and Rainer Schulte. eds. *The Craft of Translation*, Chicago & London: U Chicago P, 1992.
- Boyd, Andrew. *Broadcast Journalism: Techniques of Radio and Television News*, Focal P, 1988.
- Brown, Gillian & Yule, Georg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UP, 1983.
- Halliday, M.A.K and Martin, J.R. eds.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 Batsford Academic, 1981.
- Lake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 London: U Chicago P, 1990.
- Lakoff, Robin. *The Logic of Politenss*, University of Chicago, 1973.
- _____. *Talking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 Larson, Mildred.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Lanham, New York & Oxford: U America P, 1984.
- Lewis, Carolyn Diana. *Reporting for Televis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 1984.
- Maier, Carol. ed. "Evaluation and Translation", *The Translator* Vol. 6 No.2, 2002.
- Mencher, Melvin. *Basic Media Writing*, Brown & Benchmark, 1996.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1.
- Newmark, Peter.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hoenix Elt, 1998.

- Nord, Christiane.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Atlanta: Rodopi, 1991.
- _____. *Translating as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 Northampton: St. Jerome, 1997.
- Pinker, Steven. *Words and Rules*, New York: Perennial, 1999.
- Robinson, Douglas. *Translation and Empire*, Manchester: St. Jerome, 1997.
- Venuti, Lawrence.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7.
- _____.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V News Translation:

Focusing on Formality and Politeness

Lee, Jiyeon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the age of multimedia, the volume of translation is on a steep rise and the translated or commissioned-to-translate genres are getting varied, ranging from a variety of prints to audio-video texts such as movies, films, soap operas and CD-ROMs.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lating process of audio-video text, especially on TV broadcasting news, which shares a large portion of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written texts. Prints, once published, are fixed in time and space whereas broadcasting TV news is fleeting and temporary. With its video images and sound effects it reaches out far and wide, thus rendering the immense social responsibility to be careful in the choice of words, which should be grammatically right, politically correct and socially acceptable. Otherwise, they are censored.

The news writing in English and Korean has in common in terms of simplicity, preciseness, correctness, but differs in the degree of politeness and formality in which Korean TV news is more subject to educational, social functions as opinion leader. The corpus statistics by Kang Buhm-mo of Korea University, a compilation of linguistic usage and its frequency by genre, offers objective testimony of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Korean TV news language. Far from the guideline of 'simple, concise, and easy to pronounce', the actual language of TV news translation into Korean (TT) shows the frequent usage of Chinese characters and compound nouns, and propensity to

use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meaning, which reflects a higher level of politeness and formality than the English TV news language (ST).

▶ Key Words: TV news, multi-media translation, formality, politeness, corpus

이지연

이화통번역 대학원 겸임 교수/ YTN 동시 통역사

cafe4u@hanmail.net

미디어 번역 / 실무 통역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6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